

“학령 인구 준다고 교육투자 축소 안돼”

유은혜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효율성 논리 접근 바람직하지 않아
과감한 재정 확충·투자로 선순환을”

하반기 고교 무상교육 추진 재확인
현장 제언 위한 ‘교육협의체’ 구성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교육 관련 유관기관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장기적인 교육 투자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하반기 예고된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의 차질없는 시행을 재확인하는 등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확충과 과감한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인구구조변화대응교육협의체(가칭)’(이하 교육협의체)를 구성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협의체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등 교육 관련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유은혜 부총리가 초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교육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시도교육감들도 이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호응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 등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 투자에 적

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예고된 고등학교 3학년 대상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시도교육청이 소요재원을 추경으로 편성함에 따라 올해 고교 무상교육의 차질없는 추진을 재확인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에는 고 2·3학년으로 확대되고, 2021년에는 고교 전 학년에 전면 도입된다. 전체 학년 도입에 필요한 2021년부터 1조 995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 해서 교육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것과 같이 효율성 논리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 분야를 비롯한 재정투자 활성화가 경기 활력 제고와 세수 확충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가 다시금 교육투자 확대를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은평초 학생들과 인사하는 조희연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사회교과 연계 의회 민주주의를 방청 온 서울은평초 학생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취업난 심각해도 ‘면접 노쇼’ 여전

상반기 지원자 10명 중 3명 ‘노쇼’
면접 불참 원인 1위 “문지마 지원”

취업난이 심각하지만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은 지원자가 면접에 불참하는 ‘노쇼’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이 어려워지자 문지마 지원이 늘고 그에 따라 면접 노쇼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13일 사람이이 상반기 채용을 진행한 558개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면접 불참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

과에 따르면, 82.6%가 ‘면접에 불참한 지원자가 있다’고 응답했다.

상반기 전체 지원자 중 면접에 불참한 비율은 평균 31%였다. 지원자 10명 중 3명이 입사원서를 제출하고서도 면접에 불참하는 셈이다.

면접 불참자가 발생하는 원인(복수 응답)으로는 ‘문지마 지원’(63.1%)을 1위로 꼽았다. 이외에 ‘기본적인 예의 부족’(41%), ‘취업 의지 부족’(39%), ‘기업 규모가 작아서’(28.6%)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한용수 기자

벤츠 그리려다 경운기 그린 軍



문영철

국방기자 칼럼

장병 취·창업 지원과 개인전투장비 현대화를 위해 육군과 국방부는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렇지만 외국의 제도와 장비를 영동하게 베끼면 안 하니 못한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 마치 벤츠를 가져다 놓고 투박한 경운기를 만는 것처럼...

육군은 지난해 7개부대에 시범 적용된 취·창업 동아리 지원 프로젝트 ‘청년 Dream, 육군드림’을 올해 2월부터 24개 부대로 확대했다.

이스라엘군이 운용하고 있는 전문과 학기 기술 장교양성제도인 ‘탈피오트’가 롤모델이다. 앞서 국방부도 탈피오트 제도를 벤치마킹한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2016년 도입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육군과 국방부는 탈피오트제도를 거꾸로 접근했다. 이스라엘군은 야전환경에 부응하는 군사장비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이제도를 도입했다. 장병 취·창업 지원을 위해서가 아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이스라엘의

기업 80여개 중 상당수 기업의 대표가 탈피오트 출신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성공비결은 아이러니하게도 군복무를 통해 체득한 군사적 경험을 살려 상업적으로 성공했다는 점이다.

한 탈피오트 출신 기업인은 벽속에 숨은 적을 찾기 위해 벽을 투과해 사람을 식별하는 장비를 제안했지만 이스라엘군에 채택되지 않았다. 거대한 크기 때문에 야전성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소방 및 산업현장에서 각광받는 제품으로 태어났다.

군의 존재목적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 장병의 취·창업지원도 군사적 목적을 바탕으로 도출해야 하는 것이 취·창업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취·창업 동아리를 활성화하는 것은 자유로운 사고와 연구에 제약을 덜 받는 대학 등 민간연구기관과 산업현장의 몫이다.

엄격하게 선발된 탈피오트요원들은 대학원 과정에 해당하는 융복합교육을 받고, 야전부대에서 복무한다. 이들은 9년 동안 군에 복무하며, 야전에 필요한 참신한 장비들을 개발하거나, 개발 의견을 제안한다. 반면, 이·공계 학사들인 과학기술사관은 3년 간을 오롯이 ADD에서 복무한다. 더욱이 군장학금

을 받고도 연장복무도 없다. 나랏돈이 많은 것 같다.

지난 2017년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을 위해 ‘도전! K-스타트업 2017’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 현역군인 팀은 얼어버리는 수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먹는 수액을 제안해 국방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를 접한 한 미군은 “미국 코스트코에 팔리는 전해질제제를 한국에서는 상을 줄 정도인가?”라고 말했다.

노후된 개인전투장비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 중인 육군의 ‘위리어플랫폼’사업도 단일한 카피가 우려된다. 미국 C사의 장비를 거의 그대로 베껴낸 장비가 해외파병 부대에 보급됐기 때문이다.

방탄복의 한 종류인 플레이트 캐리어인 이 제품은 방탄판 규격이 외산과 달라 방탄판 삽입구가 뜯어졌다. 납품업체는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는 반응이었다.

그런데 군과 방사청은 위리어플랫폼으로 방산수출을 기대한다. 노후장비의 적응성 있는 보급과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장비의 수출. 어느쪽이 현실적일지 군 당국은 생각 좀 했으면 좋겠다. /captin@

대학가 소식

광운대 ‘디지털 영상편집실’ 개소

광운대학교는 지난 12일 오전 교내 화도관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영상편집실 개소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유지상 총장을 비롯한 주요 교무위원이, 한국방송학회 주정민 회장 등 임원과 롯데홈쇼핑 이완신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디지털 영상편집실은 지난 2월 한국방송학회와 롯데홈쇼핑이 진행한 대학 디지털 영상편집실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개소했다.

기존 광운영상방송센터는 SD급 방송 제작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소로 UHD 영상 제작이 가능해졌고, 기존 강좌용 제작 스튜디오에서 고품질 방송 프로그램 촬영이 가능한 크로마키 스튜디오로 조명장치가 구축됐다.

숙명여대

내일 모의논술 실시

숙명여자대학교는 오는 15일 ‘2020학년도 숙명여대 모의논술’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모의논술은 논술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실시된다. 논술우수자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800명, 온라인 600명 등 1400명 내외가 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프라인 모의논술은 지난 3일까지 선착순 모집한 결과 인문계열 661명, 자연계열 138명이 최종 접수해 치른다. 온라인 모의논술은 사전접수 없이 15일~22일까지 접수 후 바로 응시가 가능하다. 채점 결과는 내달 5일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제공된다. /한용수 기자

군인 민간병원 이용 쉬워진다

국방부, 의료시스템 개편안 발표 간부동행 없이 개인외출 때 가능 내년 시범사업, 점검 후 전면시행

병사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때 밟아야 하는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군병원 진료 때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시행된다.

국방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2.0군 의료시스템 개편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까지 군 의료시스템 개혁과제가 시행되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병의 민간병원 진료가 간단하게 이뤄질 수 있다. 이로 인해 군 병원에 대한 신뢰부족 등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의무대 1차 진료와 군병원 군의관의 진단서 발급, 부대지휘관 청원 휴가승인’ 등의 복잡한 절차는 ‘군의관의 진단서 발급→부대지휘관 승인’ 절차로 간편해진다.

이와 함께 민간병원 진료를 위한 간

부동행도 사라질 예정이다. 민간병원 외진을 위해 동행해야 하는 간부의 업무부담도 줄어들고, 병도 개인외출제도를 이용해 손쉽게 민간병원 진료를 볼 수 있게되는 것이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국방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해, 병사들의 만족도 및 효과성 등을 점검한 후 전면시행할 예정이다.

멀리 떨어진 군병원 대신 인근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을 권역·지역별 전문병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받는 위탁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강화된다.

국방부는 “환자 발생부터 종결 시까지 환자와 보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위탁환자관리팀’을 현재 1개 팀에서 3개 팀(서부·동부·남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간 및 약전후에도 운행이 가능한 의무후송전용 헬기도 2020년까지 8대가 추가배치돼 응급후송능력도 개선될 전망이다. /문형철 기자

오투기 진라면 대학생 서포터즈 ‘진앤지니’ 모집

오투기가 진라면 대학생 서포터즈 진앤지니 11기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오투기 진라면 대학생 서포터즈 진앤지니는 진라면의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와 진라면 맛의 강점을 온·오프라인에서 홍보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진앤지니 11기에 선발되는

총 30명의 대학생들은 7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7주간 진라면의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다양한 미션을 수행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6월 30일까지 진앤지니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최종 합격자는 7월 4일에 발표된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